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4.15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석환
seokhwa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피스 랠리(Peace rally): 리스크 온 투자 심리 확산

-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 나스닥 +2.0%, S&P500 사상 최고치 근접
- 미국 생산자 물가 3년 만에 최고치 기록했지만 '예상 하회'
- 종전 기대감에 희비 엇갈린 업종별 등락: 항공 ↑, 에너지

Summary

미국 증시는 미·이란 2차 종전 회담 기대와 인플레이션 완화 신호에 힘입어 강세 마감함. 다우지수는 0.66% 오르고, S&P500은 1.18% 상승하며 7,000선에 근접, 나스닥은 1.96% 급등하며 10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2021년 이후 최장 랠리를 이어감.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2000도 1%대 강세를 보이며 위험자산 선호가 전반적으로 확대된 모습이었음.

미국-이란 회담 지속 가능성

지난 11일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던 미·이란 1차 종전 협상 이후 '차기 회담'이 곧 열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안에 2차 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휴전 연장과 외교적 해법에 대한 기대가 커졌고, 이는 지정학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추며 주식시장에 안도 랠리를 촉발함.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현재까지 입수한 정보와 정황을 토대로 볼 때 미국과 이란이 평화 회담을 재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히면서, 협상이 계속되어야 하며, 협상 기간 동안 휴전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PPI '예상 하회' vs. 기름 가격 '최고치'

미국 3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 대비 0.5%로 시장 예상치 1.1%를 크게 밑돌고, 근원 PPI도 0.1% 상승에 그치면서 에너지발 물가 압력이 생각만큼 강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됨. 전년 대비로는 PPI가 4.0%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월간 흐름이 둔화된 점이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를 일부 완화시켰음. 그러나 미국의 휘발유와 디젤 가격이 이맘때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점은 우려스러운 요인. 미국 소매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이 계절적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여름 휴가철을 앞둔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 미국자동차협회(AAA) 자료에 따르면 월요일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12달러로, 해당 날짜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2022년 같은 날 기록된 4.07달러를 넘어섬. 한편, 전국 경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5.65달러로, 2022년 같은 시점에 기록된 최고치보다 60센트 이상 높음. 미국 에너지부 장관 라이트는 "향후 몇 주 동안 휘발유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밝힘.

유가 수요 2020년 이후 첫 감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쟁의 영향으로 전 세계 석유 수요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세계 원유 공급량은 2026년에 하루 15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전 예측치인 하루 110만 배럴 증가와는 대조적인 결과임.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은 2026년에 수요량을 하루 41만 배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전 보고서의 하루 246만 배럴 초과 예상치보다 크게 감소한 수치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해상 운송을 복원하는 것은 에너지 공급 및 가격 압력을 완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 4월 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연료 및 NGL(천연가스액) 수송량은 하루 380만 배럴이었는데, 이는 전쟁 이전의 하루 2천만 배럴 이상과 비교되는 수치임.

IMF 경제 성장률 하향

국제통화기금(IMF)은 중동 분쟁을 현재의 성장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꼽으며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함. 14일 최신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며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3.1%로 제시함.I중동 분쟁이 현재 세계 경제 성장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분쟁과 고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5%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함. 신흥 시장의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악화되었으며,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밝히면서, 신흥 시장 및 개발도상국의 소비자 물가는 2026년에 5.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월 전망치보다 0.7%포인트 높은 수치라고 밝힘. 이로 인해 신흥 시장 경제는 2026년에 3.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월의 4.2%에서 하락한 수치임.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이란 전쟁 여파로 올해 글로벌 석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종전 기대 속에 WTI와 브렌트유가 5% 안팎 급락하며 에너지주가 조정을 받는 대신 항공·유통 등 유가 민감 업종이 강세를 보였음. 기업 측면에서는 JP모건·씨티 등 대형 은행들이 예상보다 양호한 1분기 실적을 내놓으며 실적 시즌 출발을 견조하게 열었고, 특히 씨티는 구조조정 효과로 '깜짝 실적'을 기록해 투자심리를 지지함. 한편 IMF는 이란 전쟁 영향을 반영해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을 3.1%로 0.2%p 하향하며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을 경고했으나, 단기적으로는 휴전·협상 재개 뉴스가 투자자들의 시선을 압도함. 종합하면 지정학 리스크 완화 기대, 예상보다 온건한 물가 지표, 양호한 금융주 실적이 겹치며 미국 증시 전반에 위험선호가 강화된 하루였음. (다우 +0.66%, 나스닥 +1.96%, S&P500 +1.18%, 러셀2000 +1.32%)

특징종목

테크 강세

알파벳 (+3.6%)은 검색·클라우드·유튜브 전반에 AI를 본격 통합하고 AI 기반 구글 파이낸스 글로벌 출시 기대가 부각되며 AI 수혜 대표주로 재평가받는 흐름을 이어감. 아마존 (+3.8%)은 AWS의 연간 AI 관련 매출이 150억 달러를 돌파하고 2,000억 달러 규모 CAPEX 계획, Globalstar 합병 등 공격적 투자 전략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임. 메타 (+4.4%)는 Muse Spark AI 모델 공개와 AI 기반 광고 경쟁력 강화, 2026년 디지털 광고 1위 등극 전망이 겹치며 투자 심리를 자극함. 엔비디아 (+3.8%)는 세계 최초 오픈소스 양자 AI 모델 Ising 출시와 AI·데이터센터 수요 확대, 기관의 지분 확대가 맞물리며 반등 탄력을 강화함. 마이크로소프트 (+2.3%)는 Azure와 365 Copilot 성장, 일본 100억 달러 AI 인프라 투자 발표로 'AI 인프라 플랫폼' 위상이 부각됨. 마이크론 (+9.2%)은 AI 메모리 슈퍼사이클 기대와 실적 서프라이즈, 목표가 상향으로 AI 반도체 수혜주 중 가장 강한 랠리를 시현함. 미국 메모리 칩 지수는 2.4% 이상 상승하며 5거래일 연속 새로운 종가 기록을 경신함.

파트너십 체결

오라클(+4.74%)은 AI 인프라 모멘텀과 블룸 에너지(+23.98%) 와의 2.8GW 규모 연료전지 발전 계약 확대에 힘입어 주가가 상승했고, 블룸 에너지는 AI 데이터센터 파트너십을 통해 주가가 급등함.

금융주 엇갈린 희비

블랙록(+3.02%)과 시티그룹(+2.61%)은 1분기 호실적과 ETF 자금 유입에 힘입어 주가가 상승한 반면, 웰스파고(-5.70%)는 실적 발표가 엇갈린 후 주가가 하락함.
주당순이익(EPS)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매출과 순이자수익은 예상치를 하회함. 블랙록은 1분기에 1,300억 달러의 자금 유입과 27%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호실적을 보인 후 주가가 강세를 보임.

에너지株 약세

APA 코퍼레이션 (-6.2%)은 가스·유가 약세와 이란 휴전 기대에 따른 에너지 가격 하락 전망으로 원자재 민감도가 크게 드러나며 에너지 업종 내 약세를 주도함. S&P 500 에너지 지수는 3% 하락하며 이란 전쟁 이후 기록했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함.

암호화폐 관련주 강세

로빈후드(+10.35%), 코인베이스(+5.66%) 등 암호화폐 관련 주식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회복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임. 비트코인은 한때 7만 6천 달러를 돌파했고, 이더리움은 현재 3% 이상 상승함.

중국 기술주 강세

나스닥 골든 드래곤 차이나 지수는 2.35% 상승한 7016.57포인트로 마감.
JD.com(+7.7%), 21Vianet(+6.7%), Baidu(+5.4%), Canadian Solar(+5.1%), WeRide(+4.0%), Alibaba(+2.6%)가 강세를 보임. ETF 중에서는 중국 인터넷 지수 ETF(KWEB)가 2.26% 상승했고, 중국 기술 지수 ETF(CQQQ)는 1.87% 상승해 끝남.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국채 금리 일제히 하락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25로 하락 마감하며 미국-이란 협상 재개 기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완화 전망을 반영함. 영국 10년물은 4.72, 독일 10년물은 3.03, 한국 10년물은 3.66으로 모두 일일 기준 금리 하락세를 보이며 글로벌 채권시 전반에 안전자산 선호와 긴축 강도 완화 기대가 이어지고 있음. 에너지 가격 하락 이후, 시장 참가자들은 유럽중앙은행과 영란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베팅을 큰 폭으로 줄임. 유럽중앙은행이 올해 금리를 56bp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월요일 예상치인 68bp와 일주일 전 예상치인 80bp보다 낮아진 수치. 영란은행 역시 39bp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이전 전망치인 46bp보다 낮아진 수치임.

긴장 완화에 달러 약세

달러인덱스(DXY)는 98.10으로 하루 동안 0.3% 하락, 7거래일 연속 약세를 기록함에 따라

유로/달러는 1.18로 상승했고, 달러/엔은 158.80으로 0.4% 하락, 달러/위안과 달러/원도 각각 6.81, 1472.41로 강세를 보이는 등 비달러 통화 전반이 우위였음.

유가 급락

상품시장에서는 미국–이란 협상 진전 기대가 유가를 직접 압박하며 WTI는 배럴당 92.07로 하루 동안 7.1% 급락, 브렌트유도 95.14로 4.3% 하락함. 에너지 가격 급락과 달러 약세를 배경으로 금 가격은 온스당 4841.35로 2.0% 상승, 은은 79.56으로 5.3% 급등하는 등 귀금속의 인플레이션·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됨. 구리는 6.07로 1.6% 상승하며 경기·협상 기대를 반영했고, 곡물과 커피도 소폭 상승세를 보이는 등 에너지와 귀금속, 산업금속이 미·이란 협상 관련 뉴스에 차별적으로 반응하는 양상임.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